

“ 십자가의 도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를 포기했다고 한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말의 탁월함, 고상함, 웅변술로 오히려 복음의 효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꾸밈없는 말이나 심지어 투박한 말투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말의 지혜가 끼칠 수 있는 해로운 모든 영향을 피함으로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십자가 설교의 핵심인 보혈로 말미암은 속죄의 교리는 많은 이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오히려 이성, 웅변술, 예술, 음악, 여타의 다른 영향력이 복음을 소개하고 지원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것은 말의 지혜에 복음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며 복음 자체에 독자적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함이고,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논증과 궤변, 능수능란한 실력으로 말 할 수 있었지만 그의 가르침의 힘이 교리 자체에 있게 하고 그의 말이나 문체 혹은 전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십자가 자체의 힘을 의지하여 전했고 십자가의 영광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 십자가는 하나의 동일한 가르침 혹은 도를 가지고 있다. 그 십자가는 많은 도가 아니라 하나의 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닌 것처럼 복음도 둘이 아니다. 구세주가 한 분인 것처럼 속죄도 하나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어다 라고 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적인 독을 용납지 않고 살인을 방관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에는 건전이 필요치 않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그 교리에 진전은 없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바울이 선포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는 옛 언약의 행위구원이니 감정으로 말미암는 구원, 외형적 종교로 말미암은 구원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즉 믿으면 산다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도다.

십자가는 말을 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크게 외치고 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속죄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속죄의 교리를 미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십자가의 교리 즉 우리의 신앙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고 계시로 말미암은 은사이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의 사상가들이 계속 사고해 왔으나 거룩한 공의와 자비가 똑같이 돋보이는 그런 구원 계획을 결코 지어내지 못했다. 그 생각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창시하신 것이며 그 외에 아무데서나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없었다. 십자가의 도는 사색이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육체의 교만이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한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한다. 계시는 그들 영역밖에 있고 따라서 그들은 계시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교리를 어리석은 것이라 한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 보혈로 구원 얻는다는 영생같은 것은 증권시세나 시장의 동향에 휘해 있는 이들에게는 수다꾼들의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불신자가 독실한 신자가 되고, 부도덕한 이가 순결해지며, 부정직한 자가 정직해지고, 불경했던 이가 은혜로워지며,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진다. 악한 태도가 그치고 참회한 이로 덕을 행하려고 몸부림친다. 자기만족에 빠졌던 이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며, 부도덕한 이가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갖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또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면류관은 내 대신 못 박하신 분이 상용하는 면류관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만족해 하셨다. 오늘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좇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312호] 2012년 3월 1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enior Deaconess Ae So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10-17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Divisions in the Church" Rev. Euichang Kim
* Hymn	210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한,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김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찬홍성일(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중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씩, 이경엽, 알로르,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영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

	<p>천국시던 양성·판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처음으로 돌아가자 ”

■ 계 2:2-5

코람 데오 서울교회는 처음부터 코람 데오의 정신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신전 의식은 서울교회의 신앙의 핵심요, 자부심입니다. 지금도 이 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 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 15%의 소수가 선동하면 국가도 정복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균중심리를 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절대 영역입니다. 교회는 민주적이 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민주주의도 엄청난 맹점과 모순이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주의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유책을 은폐하기 위해 균중을 현혹시키고 선동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의협심이나 정의감이나 공명심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돌아가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길만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오직 믿음
 교회의 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그러나 그 길에 안전이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물리력이나, 교권이나, 언론이나, 금액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오직 성경
 교회는 사탄의 속삭임이 종식되고 오직 말씀으로 역사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가나안을 향한 길은 하나님 말씀 없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길이 나고, 그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될 것 입니다.

3. 오직 영광
 교회는 자기 영광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변명, 자기 합리화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정당성만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단에 놀려있거나 조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앞에 입을 다물게 하고 이익만 따라가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 입 맞춘 자는 진리 앞에 진실 앞에서 합리화 하거나 침묵하거나 왜곡 되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라’ 해야 할 때 ‘아니오’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4. 오직 은혜
 도무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용서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이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파괴하고 선교와 복음에 막대한 저해를 끼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 편 강도를 용서하심 같이 몰라서 한 것이고 어리석어 현혹되어 한 것이라 여기며 용서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맺는 말
 먼저 된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서울교회는 진리를 따라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은 항방없이 우왕좌왕하며 배회할 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포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임상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5-6...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4(사순절 1)...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85(85)...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14:13-21...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교회의 본질”... 전재홍 목사
- * 찬 송 Hymn458(513)...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30:1-2 인 도 자
- 찬 송 67(31) 다 함 께
- 기 도 이종형 집사
- 성 경 약 1:2-18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 설 교 자
- * 찬 송 146(146) 다 함 께
- * 축 도 설 교 자
-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 기 도 문분순 권사
- 성 경 막 3:20-35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주님의 가족”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안 박수강 김복희2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네 옷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5)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지난주 성구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1. 한나 전도회 월례회 / 10일(주) 오후 3시15분 101호
2. 스테반회 3월 월례회 및 청계산 산행 / 16일(토) 오전 9시 청계산명가(571-1474)

알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노선균(홍부외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p> <p>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p> <p>* 전화 예약 010-2376-3892</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61명	242명	201명	1,304명	146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3/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 3일	헌 금	52,388,000	
	단기대여금		35,000,000
	예 수 금		6,474,770
	찬양운영비		7,010,000
	교회학교운영비		150,000
	경 조 비		330,000
	출 판 비		250,000
	연합사업비		2,000,000
	복리후생비		95,000
	통 신 비		4,020
	수도광열비		7,090
	환경유지비		216,000
	수선유지비		70,500
	식당운영비		992,170
	합 계	52,388,000	52,599,550